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19년9월25일 | 조사역(G3) 안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104천 km <sup>2</sup> 	<b>인구</b> 9,414만 명 (2018) 	<b>정치체제</b> 연방제 내각책임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 추구 
<b>GDP</b> 802.79억 달러 (2018) 	<b>1인당GDP</b> 852.77달러 (2018) 	<b>통화단위</b> Birr 	<b>환율(U\$기준)</b> 27.43 (2018 평균)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리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2018년 기준 약 9,414만 명)임.
- 1974년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853달러에 불과하며,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1년에 멩기스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음. 그러나 8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부터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된 이후 2018년 3월 오모로족 출신의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가 선출되어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었으나, 2019년 6월 암하라족 주도의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는 등 부족 간 갈등에 따른 정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12. 23 수교 (북한과는 1975. 6. 5)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2),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기본협정(2011)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96,901	113,982	104,921	타이어, 수송기계, 석유사
수입	53,497	61,976	54,448	농산물, 커피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5건, 22,962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제성장률	10.4	8.0	10.2	7.7	7.7
소비자물가상승률	9.6	6.6	10.7	13.8	9.3
재정수지/GDP	-2.0	-2.3	-3.3	-3.0	-3.0

자료: IMF, EIU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 지속

- 에티오피아 경제는 국가발전종합계획(GTP) 시행에 따른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증대 및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수혜를 기반으로 최근 수년 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성장과 인프라, 제조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10.2%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산물 수확량 증가 및 제조업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정 지속,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7.7%의 성장을 시현 하였음.
- 2019년에는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건설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비슷한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됨.

### 비르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기록

- 과거 3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평균 10% 미만으로 많이 낮아졌으나, 기상조건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증감 여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비중은 식료품 53%, 주거비 16%, 의복비 7%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침.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의 여파 및 비르화 평가절하<sup>\*</sup>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상승한 10.7%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가뭄 해소에도 불구하고 비르화 평가절하의 여파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지속되어 13.8%를 기록함.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은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입억제를 위해 2017년 10월 비르화 가치를 미 달러화 대비 15% 평가절하하였으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에서 7%로 인상하였음.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및 농산물 수확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제

### 낮은 조세수입과 정부 주도의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으로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 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입이 극히 적고, 민간경제 발전 수준이 낮아 세수 기반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세수 감소 및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년(-2.3%)보다 상승한 -3.3%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정치 안정에 따른 세수 회복 및 정부의 자본적 지출 감소 노력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하락한 -3.0%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19/20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및 빈민층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3,869억 비르를 편성하였으며, 재정수입은 2,898억 비르로 예상하고 있어 2019년에도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재정지출 제한을 통해 향후 4년 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p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GTP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지속 등으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f</sup>
경 상 수 지	-7,511	-8,269	-5,566	-5,997	-5,594
경상수지/GDP	-11.9	-11.7	-7.4	-7.5	-6.2
상 품 수 지	-12,057	-11,881	-11,205	-12,687	-12,451
상 품 수 출	2,920	2,811	3,030	2,528	2,996
상 품 수 입	14,977	14,692	14,235	15,215	15,447
외 환 보 유 액	3,722	2,970	3,022	3,958	3,973
총 외 채	24,492	25,553	27,123	25,553	27,123
총외채잔액/GDP	38.8	36.1	35.8	31.8	29.8
D.S.R.	8.7	22.2	20.2	11.9	16.1

자료: IMF, EIU

###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 1차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으로 상품수지가 GDP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상품수지/GDP(%) : -19.1('15) → -16.8('16) → -14.8('17) → -15.8('18) → -13.7('19<sup>f</sup>)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에는 가뭄 회복에 따른 식품 수입 감소, 공공 부문 자본재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11.7%) 대비 개선된 -7.4%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커피 가격 하락 및 비르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7.5%를 기록하였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대외 부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자본재 수입 억제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품목 다양화 등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자본재 수입 억제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낮은 수준

-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공여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비르화 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등으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낮은 수준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백만 달러) : 2,627('15) → 3,989('16) → 4,017('17) → 3,310('18)

- 에티오피아는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15~17년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정치 불안정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감소하였음.
- 2017년 외환보유액은 30.2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1.9개월분에 불과하였음. 2018년에는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원조를 공여받아 외환보유액은 39.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2.2개월분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총당에 따른 대외차입 지속

- 대규모 인프라 개발 투자, 경상수지 적자 총당 등을 위해 대외차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말 31.8%를 기록하였음.
- IMF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DSA 등급은 2018년 기존의 Moderate 에서 High risk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수출의 높은 농업 의존도 및 수출액 감소로 외채부담이 가중된 데에서 비롯함.
- 한편, 에티오피아는 2016년 이후 외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양허성 부채 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양허성 차관의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 경우 차관의 양허율을 높이는 것을 추진 중임.
- 에티오피아 외채의 약 70%가 공적채권자(Official creditor)의 채권이며, 이중 대부분이 대출조건이 양호한 양허성 차관으로 D.S.R.은 높지 않은 편임. 2018년 D.S.R.은 외채상환금액 감소로 11.9%를 기록하였음.

## 구조적취약성

### 농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및 열악한 농업생산성

- 농업 부문이 GDP의 약 35%(2017년 기준)를 차지하며, 인구의 66% 이상(2018년 기준)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농업에 편중되어 기상조건,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산업별 GDP 구성(2017년) : 농업 34.8%, 서비스업 43.6%, 제조업 21.6%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관개시설 부족으로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등 농업 작황의 기후의존도와 변동성이 높음. 특히 관개시설 부족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오일시드, 콩 등의 수확량이 강우량에 따라 결정되어, 강우량이 농업 부문은 물론 경제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침.
- 총 경작가능면적이 국토의 약 68%인 7,360만 ha에 달하고 있음에도 농지 개발 부진으로 약 1,800만 ha만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초지 또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토지의 이용효율이 매우 낮음.
- 대다수의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의 소규모 농법에 주로 의존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 제조업 발전을 저해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의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조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8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은 47.0%,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15.8%에 불과함.
- 한편, UN이 조사한 2015년 기준 제조업경쟁력지수 순위에서 에티오피아는 조사대상 135개국 중 130위에 그치는 등 제조업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제조업경쟁력지수 순위에서 케냐는 102위, 탄자니아는 106위, 우간다는 120위, 르완다는 129위를 차지해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경쟁력이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임.

##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가능성 존재

-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자원수탈이 적어 금, 탄탈, 석재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함.
- Somali 주의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2018년 1월 기준 249억 m<sup>3</sup>로 집계되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년 9월 중국 Poly GCL사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탐사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천연가스 시범생산을 시작함. 한편, 2019년 2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지부티와 765km 길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2021년부터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내 신규 석유자원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 중국 등 여러 외국 기업들이 원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임.
- 2018년 7월 중국 Poly GCL사가 남부 Calub 유전에서 시추에 성공함에 따라 추가 원유 발견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지역에 약 13.6백만 배럴의 원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향후 인근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 기대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약 44.3%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등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92.7%로 사실상 수력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45,000MW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2위 규모이나, 현재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3,813MW 수준에 불과하여 개발의 여지가 많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발전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간 발전용량을 2020년 까지 15,488MW 수준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생산된 전력의 일부는 주변국에 수출할 예정임.
- 현재 청나일(Blue Nile River) 유역에 총공사비 45억 달러, 최대 발전용량 6,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겸한 Grand Renaissance 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이는 발전설비 용량 기준 아프리카 최대 규모로, 완공 후 케냐, 수단, 지부티에 전력 수출을 추진할 예정임.



## 정책성과

### 국가발전종합계획인 GTP를 통해 중소득국 진입 추진

- 2002년부터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발전을 추진해온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0년 발표한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I: 2011~15년)에 따라 정부 주도로 도로, 철도, 전력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였음.
- GTP I의 목표는 5년 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동 기간 중 실제로 연평균 10.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에는 다소 미달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2015년 GTP II(2016~20년)를 시행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1단계 GTP의 목표였던 5년 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의 농업존도를 줄이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2025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제조업 중 섬유·의류, 식품 가공 등 수출지향적 제조업이 중점 육성 대상이며, 2025년까지 제조업 분야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할 계획임.
- 한편, GTP II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인프라 구축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도로망 부족에 따른 물류이동 문제를 경제발전에 중대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 중 특히 도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GTP II 기간 동안 기존 도로 개선 및 유지보수,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운송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며, 에티오피아의 도로 네트워크를 2014/15년 110,414km에서 2019/20년 220,000km로 연장할 계획임.

### 산업단지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경공업 육성정책 지속

-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II를 통해 2025년까지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하여 섬유·의류, 가죽, 식품 가공 등의 경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4년 산업공단청(The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World Bank 등의 지원을 받아 전국 11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가동하고 있음.
- 공단별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종·연관 업체와의 시너지 증대가 기대되며, 저렴한 임대료 및 인프라 시설,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프랑스 등 2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등 1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음.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159위로 하위 20%에 포함되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한 상태임.
-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60위)을 제외한 9개 부문의 순위가 모두 120위 이하에 그쳤으며, 특히 자금 조달(Getting credit, 175위) 및 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78위) 부문의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민간 부문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치동향

###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 지속(2016.10월~2018.2월)

- 에티오피아는 1991년 사회주의 정권 붕괴 후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티그라이(Tigray)족 출신의 Meles Zenawi 총리(1991~2012년 집권) 사망 후 취임한 Hilemariam Desalegn 총리(2012~18년 집권) 집권 시기 반정부 시위 발생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었음.
- (2016.10월 ~ 2017.8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오로모(Oromo)족 거주지인 오로미아(Oromia) 주의 일부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수도 아디스아바바 내로 편입하는 수도 확장계획(AAIMP)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갈등이 시작되었음. AAIMP는 토지수용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오로모족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되어 오로모족의 반대시위가 지속되었으며, 소수 민족인 티그라이족의 권력독점에 반발해 암하라(Amahara)족까지 반대시위에 동참하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음.
  -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경찰 대신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전 국토의 치안을 관장하고 법원영장이 없는 체포·구금을 허용하는 등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
- (2018.2월 ~ 6월) 2018년 초 반정부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었으나, 제외된 인사 및 사면 규모 등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며 오로미아 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2018년 2월 15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혼란 방지를 이유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재선포하였음.

### 2018년 3월 오로미아 주 출신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 선출

- 하일레마리암 총리 사퇴 약 한 달 후인 2018년 3월 집권 여당인 EPRDF 내 위원회 투표가 실시되어 오로미아 주 출신의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음. 취임 시 국정 비전으로 민족 간 갈등 해결을 통한 국민 단합, 정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수립 및 시민 권리 보장,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강화 및 에리트리아와의 협력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치범 석방, 에리트리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개방 등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에티오피아 내각 및 의회는 아비 총리 선출 이후 정세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년 6월 초 국가비상사태 해제 법안을 승인하였음.
- 아비 총리는 집권 이후 티그라이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로미아 주(약 34.4%) 및 암하라 주(약 27%) 출신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였으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 간 내분이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6월 암하라족 주도의 쿠데타 발생했으나 불발

- 2019년 6월 암하라 지역에서 암하라족 출신의 군 고위 관계자인 아사미뉴 치게(Asaminew Tsige)의 주도로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해 저지되어 실패하였음.
- 주동자인 아사미뉴 치게는 암하라 주 보안 책임자로 2008년 쿠데타 기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되었다가 지난 해 아비 총리에 의해 사면된 군인이며, 티그라이족과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아비 총리 취임 이후 진행된 일련의 경제·정치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주류 세력인 티그라이족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암하라족은 오로모족 출신인 현 총리가 자기 부족 위주로 인사를 등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부족 간 갈등에 따른 정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사회동향

### 세계 최빈국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지속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8에 발표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에티오피아는 총 189개국 중 17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민 1만 명당 의사 수는 0.2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비해 평균수명은 65.9세(우리나라는 82.4세)에 불과하며,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0명 당 58.4명(우리나라는 3.4명)에 달하고 있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18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인구의 61.8%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놓여 있으며, 26.7%는 극빈선(PPP,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세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은 사회불안의 근원

-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 암하라족 등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 간 갈등이 뿌리 깊은 사회불안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오로모족(34.4%)과 암하라족(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은 인구비중이 네 번째로 크지만 이들에 비하면 훨씬 소수인 티그라이 족(6.1%)에 집중되어 있음.

### 주변국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상존

-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al-Shabab)의 테러로 인해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로 인한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음.
- 알-샤바브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물론 케냐,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역내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제관계

### 에리트레아와의 관계 개선

- 1993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양국간 국경 분쟁이 1998년 전면전으로 발전하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동 전쟁은 2000년 12월 Algier 평화협정의 체결로 종료되었으나, 2002년 에티오피아가 자국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레아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국경위원회(EEBC)\*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이후에도 두 나라 간 국경 분쟁이 지속되었음.
  - \* 동 위원회는 아프리카연합(AU)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UN 사무총장의 자문을 받음.
- 그러나 2018년 6월 에티오피아 신임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2000년에 체결한 에리트레아와의 평화협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2018년 9월 양국 정상은 임석 하에 사우디아라비아 Jeddah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
- 동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국경지대 개방 및 정상회담 진행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국 국경지대가 2019년 4월에 다시 폐쇄되어 양국 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불거졌던 이집트와의 갈등은 해결 국면

- 에티오피아 서부 Benishangul-Gumuz 지역에서 2011년 4월 착공된 청나일(Blue Nile River) 유역의 Grand Renaissance 댐은 발전용량 6,000MW 규모로 건설 중이며, 2020년 12월부터 수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임.
- 한편,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자국의 나일 강 수량(水量)이 감소하여 자국의 농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집트는 건설 초기부터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 그러나 2018년 6월, 아비 아흐메드 총리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나일 강 물 이용 지분 보장을 약속하며 양국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 2월 이집트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동건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 EU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에티오피아는 1991년 멩기스투 공산 정권 붕괴 후 출범한 멜레스 제나위 정권부터 현재까지 계속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미국, EU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를 아우르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

-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원조 공여국 중 하나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아비 총리 집권 후 미국을 방문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EU는 2016년 에티오피아와 'Strategic Engagement' 협약을 체결하고 역내 평화 및 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국제관계

###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의 기간망 사업에 대거 참여 중

- 중국은 최근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원조 및 자금 제공을 앞세워 에티오피아의 철도망, 통신망, 전력망 등 기간망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중임.

\* 2017년 기준 에티오피아 앞 유상원조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2억 4,900만 달러로 1위이며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해도 IDA(10억 6,2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중국철도그룹(China Railway Group)은 아디스아바바와 아프리카 동부 아덴 만 연안의 지부티 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750km의 전철 철도\*(계약규모 11억 달러)를 부설하여 2016년 10월 개통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경전철 공사(계약규모 4.8억 달러)도 중국 기업들이 진행하였음.

\* 다만,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사업은 중국수출입은행이 29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였으나 2016년 개통 후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북부의 Tekeze River 댐(계약규모 약 3.7억 달러) 건설, 수력발전소들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건설 및 Grand Renaissance 댐과 송배전망 건설도 수주하였음. 한편, 아비 총리는 2019년 4월 중국에 방문하여 중국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전력 운송망 및 배급망 구축 사업에 18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약에 서명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최다 채권국으로, 2019년 4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018년 말 만기가 도래한 차관에 대한 이자 면제에 대해 합의하는 등 채무재조정 협의도 진행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수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에티오피아는 고채무저소득국(HIPC) 이니셔티브 및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체결을 통해 2018년 8월 말 기준 64.1억 달러<sup>1)</sup>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과거 수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2019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32.7억 달러(단기 1.5억 달러, 중장기 31.2억 달러)이며, 원리금 연체는 1.4억 달러임.
- IMF, 세계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는 없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19.06)	7등급(2018.06)
Moody's	B1 (2018.02)	B1 (2016.12)
Fitch	B (2018.11)	B (2018.07)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 부여

- OECD는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7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Fitch는 에티오피아를 모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쌍둥이 적자 누적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도한 외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신용등급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대 정책으로 최근 수년 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에는 정치 불안정 지속 및 주요 수출품인 커피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7.7%를 시현하였으며, 2019년에도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되어 전년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조세 수입 및 인프라 개발 투자 등 공공 부문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 중이며, 경상수지 또한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외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 기조 및 비르화 가치 하락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낮은 수준임.
-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 간 갈등은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음.
- 2016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2018년 2월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사임하고 3월 오모로 족 출신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새로이 선출되었으며, 6월에는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었음. 그러나 부족 간 갈등이 지속되어 2019년 6월 암하라 족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부족간 갈등에 따른 정치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음.